

농사의 신이 깃든 농기

이걸재 | 공주석장리박물관장(공주문화원 부원장)

농부님들의 마음의 지주

넓은 냇물에 덩그러니 놓인 외나무다리. 양편에 한 무리씩 사람들이 모여든다. 한쪽은 그 고을의 원님이 아전들을 거느리고 시찰을 나왔고 또 한쪽은 농기를 앞세우고 나선 두레패가 풍장을 울리며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마주선 것이다. 고을 사또와 농기를 앞세운 두레패! 다리는 하나뿐인데 과연 누가 먼저 다리를 건널까? 당연히 두레패가 먼저다.

농기를 앞세운 두레패가 풍년과 흉년을 좌우하는 농사의 신이 깃든 농기를 모시고 있기에 그렇다.

농기를 들지 않은 두레패의 이동이라면 당연히 고을의 원님이 먼저 지나는 것이고 원님보다 먼저 다리를 건널지라도 건너고 나면 농기를 포함한 모든 두레패가 원님에게 예의를 차려야하지만 먼저 건너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 농기다.

농기를 세우는 법도

농기를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농기는 깃대, 장목, 농기, 농기 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정한 격식이 있다. 깃대의 크기는 농기에 따라 다르지만 15자 이상(450cm) 20자 이하로 하고, 장기의 꼬릿털과 갈취 수염은 상하 각기 1자 이상이다. 갈취이란 것은 정성을 들여야 얻어지는 것인데, 가을에 칩 줄기를 끊어다가 삶아서 만든 흰색 실을 말한다. 삶은 칩 줄기를 찬물에 식힌 후 대나무갈이나 낫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훑쳐 내면 하얀 섬유질만 남는데 이 색이 자연스럽게 뽀얀해서 풍장판의 잡색 중 양반의 수염이나 농기 수염을 만드는데 사용했고 노끈을 꼬는데도 유용하게 쓰였다고 한다.

장목 밑에 묶는 농기 수건은 비단이나 광목을 사용하되 글씨 외 다른 색을 쓰지 않아 신성

황현

함을 세웠다. 농기 수건에 쓰는 글씨가 신위(神位)인데, 예를 들어 공주시 계룡면 증장리 마루들 두레의 농기라면 '공주 계룡 종곡 농신(公州 鷄籠 宗谷 農神)이라 써서 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때 모든 글씨를 한자로 쓴다는 점인데, 더구나 마루들이나 두레처럼 한자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면 더 좋은 일이지 이해도 쉬울 텐데 한자를 존중하고 한글을 천시하던 풍토로 인하여 모두 한자로 썼다. 앞서 예를 든 종곡(宗谷)은 마루들, 즉 우두머리 고을이라는 말과 뜻은 같다.

깃발의 좌우와 하단에 톱니처럼 만들어진 세모꼴을 기치(旗齒)라 한다. 물론 이 기치의 숫자 역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었는데, 기치의 숫자는 좌우 각 24개, 하단 12개로 농사에 필요한 24절기와 12월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다.

그러나 이는 마을이 존중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윤달(閏月)도 달이라 하여 열세개를 만드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 네 개는 같은 길이로, 가운데 하나는 길게 하면서 마을을 보살피는 신에게 마을 고사를 모두 올리는 정월 대보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하는 식이다.

농기를 만드는 법도

신성한 물건이니 농기를 만드는 것도 모두 마을에서 자체 제작했다. 천만 상점에서 사오고 바느질도 마을 아낙네들이 직접 하고, 글씨도 대부분 마을이나 인근마을의 추앙받는 선비에게 받았다. 마음으로 신을 모시는 일이고 보니 이른바 농기 바느질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다.

날을 잡는 것은 택일이다. 신성한 영물을 만든다하여 반드시 길흉화복(吉凶禍福)의 일진을 살펴 길한 날을 잡아 장에 나가 천을 사고 바느질을 했다. 날이 잡히면 여인들의 일을 주관하는 아낙에게 먼저 통보를 하는데, 이 또한 삼칠일 즉 21일 전에 통보를 하여 바느질에 참여할 아낙네들은 부정한 곳에 가지 않으며 원행(遠行)을 금하였다.

그리고 날이 되면 소리 없이 아낙네들이 모이는데, 여인들의 합동작업이라 하여 징을 치거나 나팔을 불어 시합 모이는 것도 금했다고 한다. 물론 바느질에 참여하는 여인들의 부정 또한 가렸다. 지난 한 해 동안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큰 짐승이 죽어나간 집의 아녀자는 참여하지 못하고 단거리 중인 여인도 참여하지 못하였고, 물론 21일 안에 초상집에 간 사람이나 집안(촌수 불분)에 불길한 일이 있는 사람도 금하였다 한다. 특이한 것은 꿈인데,



흥몽을 쓴 사람이 바느질에 참여하면 농기 서는 내내, 즉 이용기간 동안 마을에 붙길한 일이 생긴다하여 역시 금했단다.

이런 연유에서 바느질을 하기 싫은 여인은 꿈을 핑계로 빠질 수 있다 여겼지만, 바느질 하는 날은 음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다.

농기의 품격

우리 고장 공주의 농기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 또한 그 농기들은 각기 상하가 분명하다. 이 말은 농기를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품격에 맞추어 세웠음을 의미한다.

농기 중 가장 어른은 용담기(龍潭旗). 용담기는 청룡 황룡을 그리거나 청룡 또는 황룡을 그리는 농기인데, 이 기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두레나 연회패를 운영하는 마을 두레에서만 세울 수 있었다. 즉 면내 으뜸의 두레나 해방 이후 빈번하였던 시·군 단위 풍장대회에 면의 대표로 출전하는 풍장패 정도 되어야 용담기를 세울 수 있었다.

물론 예외적인 마을도 있었다. 마을에 이름도 나고 법력도 센 큰무당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무당이 마을 일을 좌우하는 경우 무당의 생각(慾心)으로 세우기도 했단다.

두 번째 서열의 농기는 신농기(神農旗). 흰 천 검은 기치에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 쓰는 농기로, 농업은 신이 내려 준 직업이라는 의미다. 신농씨는 중국과 한국의 농신(農神)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레 농기로는 최고의 어른인 셈이다. 신농기를 세울 수 있는 마을은 두레의 우두머리 즉 인근마을 두레 중 2개 이상의 손아래(아우) 두레를 둔 마을이어야 하고, 마을에 서민들의 존경을 받는 양반 가문이 있어야 하며, 서당이나 서원 등의 배움터가 있는 마을이라야 세울 수 있었다.

세 번째 서열이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본기(大本旗)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는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대본기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잘한 동네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없는 마을. 이를테면 근친상간이나 살인, 큰 도둑 등이 없는 마을이면 어떤 마을이나 세울 수 있었다.

네 번째는 동작기(東作旗). 글에는 동작서성(東作西成)이라 쓰는 농기인데,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농기로 공주에는 이인면 신흥리에 단 한 점만 전래되고 있다. 동작서성이라는 말은 왕조실록에 의하면 영조대왕이 <농민들이 아침에 들에 나가면 저녁에 반드시 수확

농사령기

이 있어야 나라에 근본이 선다)는 의미로 동작서성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동작서성의 농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농기에 새겨진 고시씨자유업(高矢氏之遺業)

물론 그밖의 다른 농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농기의 룰을 지키지 않고 만드는 농기들이 있고, 마을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본 농기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해서 세우는 농기들을 말한다. 룰을 지키지 않는 농기는 대부분 독선적이고 부자인 양반이 이웃 마을과의 농기 서열을 무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있는데, 공주에서는 고시씨자유업(高矢氏之遺業) 등의 글을 쓰고 있으며, 이런 경우 대본기가 있는 마을에서 두개의 농기를 세우는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본 농기의 대체농기는 대본기를 설명하면서 말했던 마을에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여 농기를 세우지 못할 때다. 신농기를 세우고 있던 마을에서 존속살해의 대 불효나 근친상

간의 반인륜적인 사건이 있으면 이웃마을 두레들이 농기 세우는 것을 완전 봉쇄하기도 했는데 이때 농기를 대신해서 세우는 것이 이른바 신농사령기와 농사령기다.

신농사령이나 농사령은 모두 우두머리 영기 격이다. 신농기의 마을에서는 청홍영기에 신농사령기를, 대본기의 마을에서는 흑백영기에 농사령기를 두기도 했는데 본 농기를 세우지 못하면서 사령기를 세웠던 것이다.

신농사령기가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마을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상례 소리>로 유명한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다.

함께 살아가는 기준이었던 농기

이렇게 형성되는 농기의 서열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들판에서 어떤 농기를 만나면 아래 농기가 절을 하고 예를 갖추어 허락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었는데, 농기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마을이든 어떤 두레든 격을 어겼을 때다. 이를테면 대본기를 세워야 하는 마을에서 신농기를 세우든가 신농기를 세웠는데 마을의 체면을 구길 흉사. 이를테면



큰 불효, 근친상간, 살인 등이 발생하면 농기를 세우지 못하거나 격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인근 모든 마을 두레가 이 마을 두레를 적대시하여 두레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충청도 말로 <짜고 텨비는 격>이 되어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두레들은 타동두레와의 두레싸움이 매우 격하면서도 잦았다. 앞서 두레 싸움에서 논의했던 사항으로 더 자세한 기록은 생략하지만 농기의 서열을 어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마을과 마을간에 어른과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현대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른바 <동네 체면>이라는 말로 서로 경계를 삼고 강제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 지금처럼 자세히 서지 못하고 정보가 지금처럼 밝지 않았던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의 체면을 중히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 서로 질서를 세우며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가꾸고 이웃을 서로 보살피면서 가난 속에서도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이다.

농기가 서는 날

이런 농기가 서는 날은 년 중 3회 정도. 첫째는 마을 고사를 지내는 날이다. 산신제나 저리제, 장승제, 농기고사(農旗告祀) 등의 마을 고사를 지내는 마을 중에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이나 초이레날에 농기를 세운다. 이때는 영기를 세우지 않고 농기만 세우는데 농기를 세우는 곳은 마을 고사터 주변 가까이 농기를 세우는 곳이 정해져 있다. 아침에 장정들이 소제(청소)를 하고는 농기를 세우고 금줄을 친다. 그리고 마을 고사를 지낸 후에 농기에 잔을 부어 올리는 농기고사를 지낸 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음력 2월 1일에 농기를 진는다. 그러니까 24일에서 27일간 서있는 것이다.

둘째는 두레가 서는 기간이다. 여름두레가 서기 칠일전 또는 삼일전에 농기를 세운다. 두레 농기를 세워두는 곳을 농기바탕이라고 이르는데, 두레 농기는 일판을 모두 이동하는 마을과 농기는 두레 바탕에 세워 두고 영기만 이동하는 두 가지가 있다.

농기를 세우는 날은 소제를 하고 농기를 세워 들고는 앞에서 풍장꾼이 길을 열고 영기를 앞세운 농기가 가며 그 뒤에는 두레좌상을 비롯한 두레 어른들과 장정들이 뒤따라간다. 이때는 농기가 춤을 추지 않는다. 최대한 경건하게 농기를 모시고 나가 두레 바탕에 세운다.

농기

고정하는 농기 줄은 보통이 세 줄이며 네 줄인 마을도 있다.

이후 농기는 여름두레 막음을 하는 백중날까지 두레 바탕에 서있다. 들에서 일을 하는 두레꾼들, 즉 농부들을 지켜주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여름두레 먹는 날 두레 논매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여름두레 먹는 장소로 모든 두레꾼들이 이동을 할 때 농기를 뽑아 들고 이동을 한다. 꽃나비라 하여 어깨위에 여장 남자아이를 어깨위에 세우고 춤을 추는 것도 이때의 놀이다.

행진 순서는 1) 질나래비 2) 꽃나비 3) 두레 풍장꾼 4) 영기 5) 농기 6) 좌상 7) 두레 어른들 8) 두레꾼들 순이며 농기가 춤을 추는 것도 이때다.

여름두레 먹는 장소로 이동한 농기는 정해진 장소에 세우는데 이때는 영기를 앞에 세운다. 그리고 여름두레를 먹기 전에 좌상이 '두레꾼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은 농기고사를 간단하게 올려야 여름두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여름두레를 위해 세워 놓은 농기는 여름두레 먹는 날 걷는 마을도 있고 팔월 초하루에 걷는 마을도 있었다. 두레 농기가 서는 날수는 한물, 두물, 세물 두레에 따라 다른데 한물 두레는 30일, 두물 두레는 40일, 세물두레는 50일 내외다.

세 번째는 두레 공동 작업으로 재해 복구 사업을 행하는 때이다.

홍수로 냇물 제방이 터지는 등의 이유로 농작물이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개인의 힘으로 복구가 힘들 때는 두레가 나서서 피해 복구 사업을 펼친다. 물론 이때는 모든 두레 구성원이 출역을 해야 하며 모두 무료 봉사다. 재해 발생시 농작물 대상이 아니면 대동계가 나서고 농작물일 때는 두레가 나선다.

농기와 두레벌

농기가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마을 전체의 일만이 아니다. 농기는 개인의 잘못을 꾸지람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때 행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주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를 행하는 주체는 두레이다. 마을에서 굶하는 일들, 풀어 말해서 불효(不孝)를 저지르거나 어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둑질을 한 사람, 더 나아가 간통이나 근친상간 따위의 일들이 일어나면 농기를 세우고 벌을 주는 마당인 <두레벌 마당>이 열리는 것이다.



가벼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벌을 줄때는 농기 앞에서 두레 좌상이나 임원들이 잘못을 꾸지람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심각한 사안이 벌어지면 농기에 잘못된 사람을 묶어 놓고 치죄를 하고 벌을 줬다. 그러니까 농기 깃대에 묶이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신의 일어기에 거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묶인 사유로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농기에 묶어 놓고 행하는 두레벌은 세 가지가 있다.

농기에 묶어두고 일정한 시간동안 풀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가벼운 것이고, 묶인 사람에게 두레꾼들이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가장 중한 것은 회초리를 때리고 묶어 두는 것이었다. 물론 이를 행하는 기준은 죄를 지은 정도에 따라 행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두레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리를 따져 좌상이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다. 평소에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 술에 취해 부모의 몸에 손을 대면 불효자는 깃대에 한나절을 묶어 두고,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은 실수를 한 것은 회초리를 때리며 이런 행위들이 2회 이상, 바꾸어 말해서 상습적일 때는 회초리를 때리고 하루 종일 깃대에 묶어 두는 정도란다. 여기서 더해 부모의 몸에 손을 대 상처를 내게 되면 농기에 묶어 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묶인 상태에서 모든 두레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회초리를 때린다. 이를 농기매라 이르는 데, 농기매는 친하다 하여 사양하지 못하고 소원하다 하여 더 때리지 못한다. 모든 마을사람들과 두레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나절 동안 농기에 묶여 있고 회초리까지 맞는다면 그 마을에 어떻게 살겠는가? 이는 참으로 많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관습이었다고 생각한다.

농기 춤 - 흥의 중심

농기에 묶여 벌을 받아 본 사람은 농기가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농기는 믿음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흥의 상징이다.

농기와 풍장(農樂)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에 대동고사를 위해 농기를 세울 때나 여름 두레를 세우기 위해 농기를 세울 때나 모두 한번 세운 농기는 보름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서있다. 물론 세우는 자리도 정해진다. 그런데 세우는 날에도 풍장을 울리며 거두어들이는 날에도 풍장을 치고 거둔다. 그뿐 아니라 고사를 지내는 날과 여름두레를 먹는 날에는 모든 마을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과 술을 먹고 춤을 추며 노는



풍습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전통사회 우리고장 공주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흥을 함께 한 날은 그리 많지 않다. 정월 대보름의 동네 고사를 지내는 날, 단오날이나 그 주변에 붙 두레 먹는 날, 백중날이나 그 부근에 여름두레 먹는 날 정도인데 그 중 2일은 반드시라 해도 흥을 만큼 풍장과 춤, 그리고 술이 함께 어우러졌으며 풍장을 치고 흥겹게 춤을 추는 마당도 농기의 주변이었으나 흥의 중심이 농기라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우리고장 공주에는 다른 고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민속이 있다. 이른바 농기 춤이 그것인데 장정 한사람이 농기를 들고 농기를 휘두르며 풍장가락에 맞추어 추는 춤이 그것이다.

농기의 깃대는 굵기가 아주 굵은 대나무이고 길이가 5-6m에 이른다. 그곳에 큰 깃발을 달기 때문에 마을 최고의 장정이 아니면 혼자 드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들다. 더구나 바람이 불어 기폭이 펴력이면 깃발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든다.

그런데 그런 농기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것도 수직으로만 들고 추는 작은 춤이 아니라 깃대를 가로 눕혀 돌리고 곤두세워 들썩이면서 추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바람이 없으면 기폭의 흔들림을 이용해 깃대를 놀리는 파격적인 춤사위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춤은 힘보다는 요령이 좋아야 한다. 몸집이 우람한 장정이 아니라 조금은 가냘퍼 보이는 사람이 커다란 농기를 가볍게 놀리는 춤이니 어디를 가도 인기가 있었다.

농기 춤의 이름은 <농기 놀리기>인데, 신적 의미가 있어서 <농기 놀리신다> 또는 <농기가 노신다>라 표현했다고 한다.

공주시에서는 반포면 공암, 봉곡리와 의당면의 율정, 수촌리에서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절멸되었고, 그나마 의당면 집터다지기 보존회 회원 2명이 다시 살려 행하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 마을은 두레가 서지 못하면 마을 대접을 받지 못했고 두레는 농기를 세우지 못하면 세우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농기는 마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옛 농기를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마을에서 너무 소홀히 보관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다시 농기에 농심(農心)이 실리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다. 농기는 농신이며 농민이기 때문이다.